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을 활용한 해양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 한창수*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

A Study on Ocean Cultural Space developed on the Gadeokdo lighthous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ang-Soo Han**

* *Maritime Traffic Facilities Division,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Busan 601-726, Korea*

요 약 : 대한제국 융희 3년인 1909년 12월 25일에 초점등하여 현재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덕도등대에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여 등대 및 가덕도 섬의 역사와 문화를 해양유물로서 보존하고 가덕도등대를 통하여 주변역사와 해양문화를 국민들이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등대, 항로표지,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

ABSTRACT : *On the crisis of international economy, the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seek economic growing motivation with the method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and 'low carbon green growth'. Furthermore, to promote maritime vessel traffic service related inefficient energy wastage was revealed and eco-friendly alternative energy was accepted because of high price of oil in the beginning of 2008. In this situation, I'm going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eco-friendly energy system in maritime vessel traffic service with the way of cutting the budget and expans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which was promoted to meet governmental 'energy saving plan for high price of oil'.*

KEY WORDS : *Lighthouse, Aids to Navigation, Gadeokdo lighthouse, Ocean Cultural Space*

1. 서 론

가덕도등대는 지난 1909년에 건립되어 100주년을 맞았다. 1909년 당시는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 마지막 해이기는 하나 이미 일제의 한반도침략 야욕에 의해 암운이 드리워진 시기였다. 1876년 '조일수호조약(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은 개항하게 되고 1883년 7월에 맺은 '조일통상조약'을 근거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 1902년 인천에 해관등대국 탁치부를 두어 우리나라 근대식 등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가덕도등대의 설치는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융희 3년인 1909년 12월 25일에 초점등하여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가덕도는 예로부터 항구로 크게 발전한 부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떨어진 외딴 섬이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유구한 세월동안 또는 격랑의 역사 중심에서 묵묵히 바다에 맞서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삶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가덕도 이곳저곳에 유적으로 산재하여 있다. 가덕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관문으로서 역할이 컸는데, 가야시대 허황후의 항로, 세곡로, 임진왜란, 러일전쟁 등의 중심무대이었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국제물류의 중심항 부산신항만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 신공항 유치 등 다시 한번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가덕도는 가덕도등대를 통

† 교신저자 : * 비회원, hanvitho@korea.kr 010)3375-2007

하여 가덕도 고유 가치와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문화공간으로서 가덕도등대를 통하여 가덕도 자연, 삶에서 비롯된 가덕도다움의 고유 가치를 재생하고 가덕도다움의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지향하고자 한다.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1 추 진 배 경

대한제국 융희 3년인 1909년 12월 25일에 초점등하여 현재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덕도등대에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여 등대 및 가덕도 섬의 역사와 문화를 해양유물로서 보존하고 가덕도등대를 통하여 주변역사와 해양문화를 국민들이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한다.

2.2 계획의 목표 및 핵심과제

점등 100주년을 맞는 가덕도등대를 국토해양부 '등대문화유산' 및 부산광역시 '지정유형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부산항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가덕도 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전시하는 전시실과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체험교실의 시설을 갖춘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2.3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 구성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의 제1전시실인 '가덕도등대 전시관'에는 점등 100주년이 되는 가덕도등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대역사 및 항로표지 관리제도의 변천사를 등대유물 중심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특히, 가덕도등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건과 가덕도등대의 역할과 연관지어 유추할 수 있는 봉수대 및 허황후 설화 등을 통하여 항로표지의 유래를 살펴본다.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의 제2전시실인 '가덕도생활문화관'에는 현재 부산항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가덕도 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가덕도생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활도구, 농기구 및 어구 등을 구분하여 전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남,여를 구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세미나실, 식당 등 기타 편의시설로서 기념관을 구성한다.

3. 현 황 조 사

3.1 조사의 목적과 방향

가덕도의 향토사, 항만행정, 건축, 고지도, 문화재 등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에서 이루어진 현황조사와 유물수집을 통하여 세부 전시계획의 근거를 마련한다.

3.1 조 사 기 간

1) 1차 현장조사 : 2009. 9. 16 (대항마을 일원)
2) 2차 현장조사 : 2009. 10. 13 (천성마을 일원)
3) 3차 현장조사 : 2009. 10. 19 (눌차마을 일원)
4) 4차 현장조사 : 2009. 11. 12 (동선 · 생교 · 외눌마을 등)
5) 5차 현장조사 : 2009. 12. 7. ~ 12. 8.

3.2 조 사 내 용

1) 가덕도 생활민속품 수집(생활도구, 농기구, 어구 등)
2) 주민대상 인터뷰조사
3) 가덕도 유적지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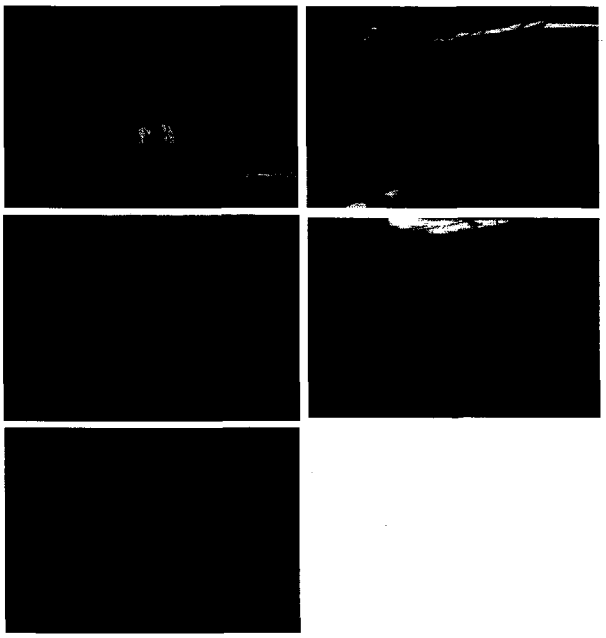

Fig. 1 가덕도 현지조사(1~5차)

4. 가덕도등대

4.1 등대문화유산제8호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안 및 섬에 산재해 있는 등대 중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팔미도(구)등대 외 22개소의 등대시설 보존물에 대하여 항로표지법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등대문화유산의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34호, 2007.6.4)은 '해양유물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로표지보존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등대문화유산'을 지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등대의 1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대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이고 상징적 의미의 홍보전략의 필요와 유인등대 중 '아름다운 등대'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독특한 해양문화 공간의 제공 및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름다운등대 16경'을 선정하였다.

관내	부산	(제주)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진도)	포항	대산
41	3	4	4	4	2	3	4	2	3	4	7	1

Table. 1 우리나라 유인등대 현황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방문객(명)	1,124,300	1,350,800	1,410,300	1,720,400	1,965,800

Table. 2 유인등대 방문객 현황(해양수산부, 2006년통계)

아름다운등대 16경의 선정은 유인등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가치와 대국민의 인지도 및 상징성,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10경에서 6경을 추가하여 선정하였다.(2007.10.12)

4.2 부산시지정문화재제50호

가덕도등대는 1909년 12월에 완공된 등대로서, 대한제국 때 건립한 41개의 유인(有人)등대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등대가 등탑과 부속사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과 달리 8각형의 등탑을 부속사와 중앙에 올려 세워 등탑과 부속사를 단일 건물로 구성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기초와 기단부는 콘크리트, 벽체는 적벽돌 치장쌓기, 등탑은 콘크리트로 쌓은 동체 위에 점등실을 원형의 철제지붕과 유리로 제작하였다. 지붕은 적벽돌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를 걸어서 완만한 경사의 4모지붕 형식으로 올리고 함석으로 시공하였으며, 외벽을 적벽돌 치장쌓기한 다음 벽색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상부 낙간벽은 적벽돌로 쌓아 올리고, 버팀벽의 상부를 더 높게 올려서 고딕건축의 첨탑을, 수평의 난간벽과 적벽돌 모서리를 돌출시킨 수평 돌림띠, 수평의 상·하인방을 설치한 외벽 창호 등에서는 중세 성관(Chateau)건축에 사용된 르네상스 풍의 의장수법을 연상시키고 있다. 또한 정면 현관 캐노피 지붕은 고딕건축의 첨탑식 지붕에 한국 전통건축 양식의 주두와 접시받침이 있는 기둥을 세우는 등 동·서양의 의장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현관 캐노피 상부 페디먼트에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보이는 오얏꽃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당시 일제가 조선 황실의 문양 사용을 종용했던 사실과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가덕도등대는 특히 평면 및 입면의 구성 방식, 근대적 양식건축에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철·시멘트·콘크리트·적벽돌·유리 등을 사용했다는 점, 의장수법 등에서 부산 지역의 근대건축 도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뿐 아니라 한국 근대건축사에서 결코 소홀하게 취급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근대 서구 건축양식과 건축재료, 의장수법 등이 최초로 사용되었던 건물 중의 하나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상당 부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세부적인 건축기법을 통해서 당시의 건축기법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돋보이는 문화재라 할 수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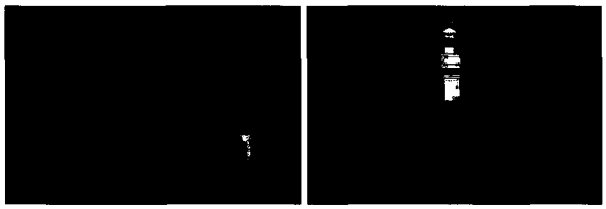

Fig. 1 가덕도등대 전경(김관중 촬영) 및 3D투시도(정진형 제작)

5. 가덕도(加德島)

5.1 가덕도 일반현황

면적 20.78㎢, 해안선길이 36㎞이다. 1999년 12월 말 현재 1,284세대에 3,80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섬으로, 최고점은 연대봉(烟臺峰:459.4m)이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조선시대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확인되며, 기록에 의하면 1544년(조선 중종 39) 이 지역에 가덕진(加德鎭)과 천성만호진(天城萬戶鎭)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1914년 창원군 천가면에 속하였고, 1980년 의창군 천가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89년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섬의 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해안은 동쪽과 남쪽이 단조로운 반면 서쪽은 소규모의 곶(串)과 만(灣)이 연이어져 드나듦이 심하고, 북쪽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이 가파른 해식애를 이룬다. 섬 전역이 산지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평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보리·양파·마늘 등을 재배하며, 연안에서는 굴 양식이 활발하다. 주로 숭어·대구·청어 등이 많이 잡히며, 미역·홍합·바지락·조개류 등도 많이 채취된다.

1) 부산광역시(2009), 부산의 문화재, P128

남쪽 끝의 동두말(東頭末)에 있는 가덕도 등대는 남해의 관광명소로 꼽히며, 문화재로 천성진성(天城鎭城:부산기념물 34), 가덕도 척화비(부산기념물 35), 연대 봉수대, 가덕도 자생동백군(부산기념물 36) 등이 있다. 현재 부산 제2의 신항만 건설이 진행중이다.

5.2 가덕도의 해양문화_경관

1) 천성봉수대 / 강서구 천성동 산 6-1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459m의 연대봉 정상에 봉수대가 있다. 이 봉수대의 설치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려 의종 때를 전후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1년 광무원년에 전국 봉수대의 역할이 폐지될 때 형체가 거의 없어진 것을 1996년 4월 26일 강서구에서 다시 복원했다. 위치로 보아 일본의 대마도와 가장 가까운 해안 연변봉수대이며 동래직봉 소속의 간봉으로서 서쪽으로는 웅천의 사화랑 봉수대에 연결하여 진해 창원 창녕 성주 칠곡 김천 상주 문경을 거쳐서 충주에서 동래직봉 선과 만나는 역할을 하고, 북쪽으로는 녹산동의 성화예산 봉수대에 연결하여 김해 분산성, 진영, 수산, 밀양, 청도, 경산, 대구를 거쳐서 영천의 성황당 봉수대에 닿아 동래직봉선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동으로는 다대포의 응봉봉수대와 교신하는 국토의 최첨단에 위치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가덕진성(加德鎭城) / 강서구 성북동 470번지 외

이 성은 가덕도 선창포구로부터 1.5km쯤 거리에 있는 성북동에 있으며 성의 안팎으로 공공기관과 민가로 꽉 짜여 있어서 그 형체는 대부분 파괴되고 천가초등학교와 덕문중학교 담벽이 그 흔적을 나타내주고 있다.

사방의 중앙상부에 성문자리가 확인되고 있고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 밖은 10m 해자(垓字)를 설치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총 연장 800여m이고 높이는 2.3m정도 되는 규모이다. 중종 39년(1544)에 사량진에 왜구들이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지킬 필요성이 있어 가덕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수군첨절제사가 주둔하면서 가덕도 전체를 지키고 다스렸던 곳이다. 산꼭대기에 있는 왜성과 달리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민가와 관청에 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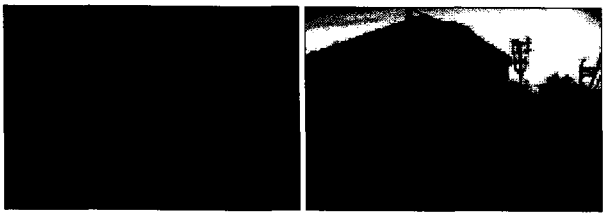

Fig. 2 천성봉수대 및 가덕진성

3) 성북왜성 / 강서구 성북동 산 43, 53, 52번지

선창마을 서북쪽 갈마봉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 따라 그 흔적이 남아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왜군에 의해서 축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최근 부산시립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축성방법이 고려의 성곽과 같은 것으로 보아 본래 우리 성을 임진왜란 때 왜군이 점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상부근에 석축으로 된 관망대 흔적은 지금도 뚜렷이 나타나 있고 내성의 석축부분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흙으로 쌓은 외성700m는 거의 무너지고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 왜성은 눌차왜성과 함께 안골포 왜성과 3각형을 형성하는 산 정상에 위치한 성으로 우리의 가덕진성과 천성 만호진성, 안골성, 웅천성을 견제하는 그들의 매우 중요한 기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4) 눌차왜성 / 강서구 눌차동 산 84-7.84-8번지

눌차 마을 뒷산에 있으며 가덕진성(加德鎭城)과 1.5km떨어진 북쪽에 있는 눌차섬의 산꼭대기에 있는 왜성인데 해발70m의 산꼭대기를 편편하게 깎아서 석축으로 본 둘레를 구축하고 그 아래 두 번째 둘레, 세 번째 둘레를 흙으로 쌓은 것인데 현재 본 둘레의 석축부분은 남아 있으나 성 내외는 대부분 경작지로 변했다. 높이가 약3m 둘레는 700m가량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가덕도의 첫 머리에 위치하면서 낙동강 하구를 장악하여 죽도섬을 드나드게 하고 웅천성을 노리는 왜군들의 중요한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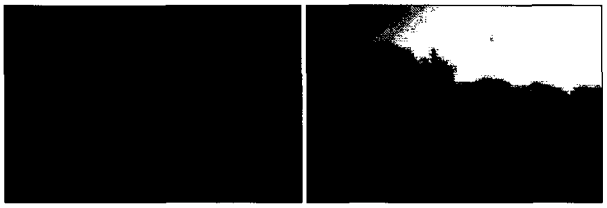

Fig. 3 성북왜성 및 눌차왜성

5) 외양포 패총 / 강서구 대항동 산 13-2

외양포의 서쪽해안 끝 부분에 두 곳이 있는데 1992년 신라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로 발굴하였으며 지금도 패총의 단면도를 잘 볼 수 있고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특이하게 해안에 바로 잇대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총의 중앙부에 쓰레기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단면의 성격으로 보아 부식토가 없는 순 패각층으로 패각 량에 비하여 출토유물이 빈약하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패총의 성격으로 보아 주거지가 아닌 어패류를 얻기 위한 임시 작업공간으로 볼 수 있다.

6) 두문(斗文) 지석묘(支石墓) / 강서구 천성동 1492번지 지선

부산에서 유일한 해안 지석묘로서 1992년 신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으로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두문마을 동북쪽 해안 언덕에 있는 지석묘로서 길이 2.5m 두께 80cm정도로 단 하나이면서 그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지석묘의 성격은 남방식이며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후반 무렵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인공은 적어도 이 섬을 다스리던 인물로 추정된다.

7) 성북고분 / 강서구 성북동 810번지 일대

신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7~8세기 가야말기 소형고분으로 추정되는 단경호(짧은 자루병), 장경호(긴 자루병), 개배편, 시루편 등 발굴 채집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가야시대 이루어진 고분으로 추정된다. 이로서 유적지의 형성경과 그 당시의 생활상의 일편을 엿볼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가덕도의 유일한 고분으로 이땅에 처음 인간의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온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자료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선창 마을과 성북 마을 사이 언덕바지에 대추나무 밭을 이루고 있으며 그동안 오랜 경작으로 훼손되어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8) 조선시대 병기공장 곳집 / 강서구 성북동

곳집은 조선시대 칼, 창, 활촉 등의 병기(兵器) 를 만들던 곳으로 지금의 병기공장 쯤에 해당하는 곳이다. 성북동 504번지 현재의 덕문중학교 운동장에 조선시대 말기까지 50여평 짜리 곳집 2동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9) 가덕도 선창 병기창고 / 강서구 가덕도 선창마을

선창마을 바로 뒤 언덕바지에 있으며 지금은 유자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은 조선말기 까지 병기를 보관해 두던 병기창고로서 이곳에서 칼, 창, 화살촉, 갑옷비늘 등이 발견되었으며 약 50여평 정도 되는 창고로 쓰던 집 두 채가 있었다. 최근 이곳에서 지붕에 사용했던 기왓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두께로 보아 200~300 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 성북의 병기공장에서 만든 병기를 이곳에 보관했다가 선박 편으로 운송하거나 우리 수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5.3 가덕도의 해양문화_삶(역사)

1) 가덕도의 유래

김해의 보배산이 바다가운데 침몰 되었다가 다시 솟아서 이루어졌다는 전설이 있는 가덕도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 조선시대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확인되며, 기록에 의하면 고려사 지지 금주 웅신현에 가덕도의 기록에 나오며, 1544년(조선 중종 39) 이 지역에 가덕진(加德鎭)과 천성만호진(天城萬戶鎭)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1914년 창원군 천가면에 속하였고, 1980년 의창군 천가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89년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행정구역상 강서구 천가동으로 유인도 2개(가덕도, 눌차도)와 무인도 11개 등 총 13개 섬으로, 가덕도와 눌차도는 방조제로 서로연결이 되어 있다. 가덕도의 지명은 고려시대 때 이 섬에서 더덕이 많이 난다고 하여 가덕도라고 칭하였다 한다.

2) 가덕진(加德鎭)

가덕진은 지금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의 동선동 일대이다. 1546년(명종 1)에 鎭(진)을 설치했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성이 왜군에게 함락된 후 安骨城(안골성)으로 옮겼다. 이후 1656년(효종 7) 통제사 柳燾然(류혁연)의 狀啓(장계)로 本島(본도)로 돌아왔다. 지도 제작 당시는 水軍(수군) 檢使鎭(검사진)으로 완연한 성곽의 내부에는 각종의 관아건물과 이 시기 설치되는 砲手廳(포수청), 火砲手廳(화포수청)등도 그려져 있다. 해안의 船所(선소)인 禦變亭(어병정) 부근에는 斥和碑(척화비)도 그려져 있다. 1871년 辛未洋擾(신미양요)를 겪은 후 그해 4월에 서울과 전국 각지의 都會(도회)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던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인다. 그러나 이 지도에도 척화비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회가 아닌 중요 군사기지에서도 척화비를 건립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해안의 선창에는 배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1871년의 『영남읍지』에는 軍船(군선) 2척, 兵船(병선) 2척, 伺候船(사후선) 4척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읍성의 동문 주변에는 민가를 빽빽하게 그려 大村(대촌)임을 나타내었고 그 외곽에는 논밭의 배미를 그려 경지를 표시한 점이 특이하다.(海東地圖서울대 규장각 소장)

3) 천성진(天城鎭)

천성진은 지금의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의 천성동 일대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熊川縣(웅천현)에 속해 있었다. 1544년(중종 39)에 진을 설치했는데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함락된 후 安骨城(안골성)으로 옮겼다가 1656년(효종 7)에 다시 이곳으로 移設(이설)하여 水軍 萬戶(수군 만호)로 수비케 하였다.

이 지도는 加德鎭圖(가덕진도)와 표현기법이 유사하여 같은 사람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천성진의 좌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까닭에 동쪽을 상단으로 잡아 그렸다. 천성진이 크게 확대되어 중앙에 그려져 있는데 성곽의 내부에는 각종의 관아 건물이 상세하고 당시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砲手廳도 눈에 띈다. 1871년의 『영남읍지』에는 戰船(전선) 1척, 兵船(병선) 1척, 使候船(사후선) 2척이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산지는 조감도식으로 그려 봉우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수목까지도 그려져 있다. 지도의 상단에는 인근 지역까지의 道里(도리)를 수록하여 지도를 보완해 주고 있다.(海東地圖서울대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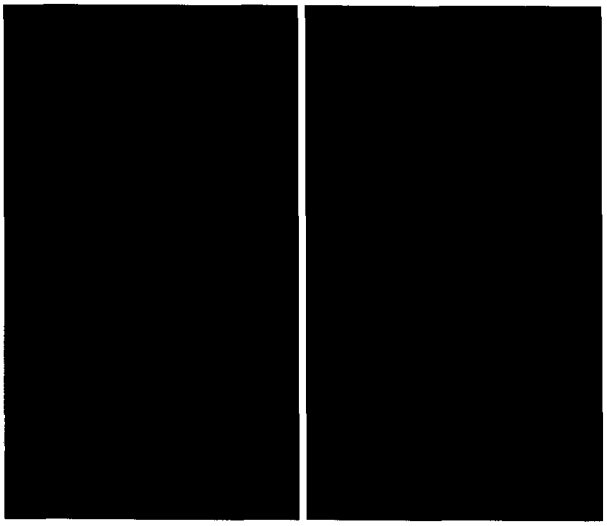

Fig. 4 가덕진도 및 천성진도(조선후기 지방도)

4) 가덕도의 주요역사

가덕도 대항마을과 외항포 등지에는 패총과 토기가 발견되었으며, 두문마을에는 지석묘가, 선창마을에는 청자편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때,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가야시대,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중종 39년(1544년) 이 섬에 가덕진(加德鎭)과 천성만호진(天城萬戶鎭) 을 설치, 이순신 장군이 하루를 묵고 갔다고 한다.

지금의 덕문중고등학교 자리에는 조선시대의 곳집(병기제작소) 흔적이 조선말까지 있었다고 한다. 일제때는 왜군이 외항포를 차지, 포대진지를 만들었고, 천성~대항 해안에 동굴을 파서 진지와 관측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1936년 암울했던 이 시기에 성북마을의 故김도근옹은 항일친목단체를 결성, 조국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일경에 채포돼 감옥살이를 하는 등 섬사람으로서 독립에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5.4 가덕도의 문화_삶(사람)

1) 대항마을

재래식 승어들이(육수장망어법)를 200년째 이어오고 있는 곳으로 부산시가 무형문화재로 추진중이다. 곳곳의 낚시터와 다양한 수산물 이야말로 가덕도가 자랑하는 보고이다. 이 마을 너머엔 또하나의 새바지가 있어 대구어장으로 사용되었다.

마을 오른편 고개너머에 위치한 외항포는 일본군이 포부대로 사용한 동굴들이 있으며, 시원스런 해송과 몽돌마당이 행락객을 재촉한다. 이 마을에는 패총과 선사시대 유물들이 발견됐다. 외항포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덕수로, 등대, 아동섬, 자생동백군락지등 멋진 자연이 있고, 볼락, 감성돔, 게르치, 망상어 등 고급어종이 주로 잡힌다.

2) 천성마을

천성진성 및 기념비, 천성산 국군묘지, 연대봉, 연대봉 봉수대 등의 유적이 있다. 천수대, 감수섬 등 낚시터와 함께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 마을에서도 숭어가 많이 지나가는 길목(천수대~거가대교 공사지역)이어서 한때 숭어들이를 하곤 했다. 현재 가덕도와 거제도를 있는 거가대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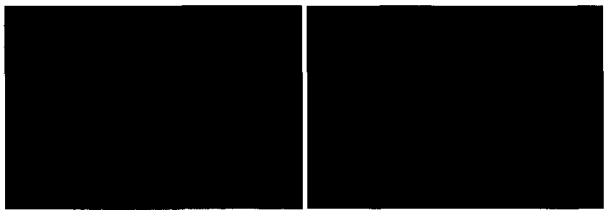

Fig. 5 대항마을 및 천성마을 전경

3) 두문마을

마을앞 해안 몽돌밭이 장관을 이루고, 웅주봉에서 뻗어내린 홍착골 계곡 또한 그만이다. 앞바다에는 병산열도(갈미섬)가 나열되어 있는데, 왜정때 금괴가 침몰됐다는 이야기도 있는 곳으로 군데군데 낚시도 잘 된다.

4) 장항마을

노루목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장항은 율리에서 해안선을 따라 1.5km정도가면 있는 마을이다. 용원에서 장항~두문~천성~대항~외항포를 지나는 가덕도 정기여객선이 처음 닿는 곳이다. 마을뒤로 독뫼산이 있고, 몽돌마당이 있는 백옥포, 코바위, 처녀총각바위, 입도, 호남도, 토도 등 낚시터로 유명한 곳이다. 활어 이외에도 해산물이 풍부해 해녀들의 물길이 붐비는 곳이다.

5) 율리마을

밤나무가 많아 붙여진 율리(栗里)는 선창에서 시작되는 천가일주 도로변 어촌이다. 구곡산간과 산박등산, 매선이곡 골짜기 위쪽에는 설멧등 등이 있으며, 뒷산에는 부엉이바위가 있다. 한때 범죄없는 마을이기도 했다.

6) 선창마을

선창(仙倉)은 가덕도의 제 1관문이기도 하다. 옛 가덕 청사시절에는 수군 군항지이기도 했다. 마을 뒷산에는 갈마봉이 있고, 그 곳에 왜성이 하나 있다. 패류양식과 유자재배를 주수입으로 한다.

7) 동선마을

동선(東仙)에 가면 응봉산, 매봉, 밤나무등, 동메산 등의 등산 코스가 있고, 누릉녕, 기도원, 고래덕, 마당여, 탕수구미 등 훌륭한 갯바위 낚시터가 있다. 반농 반어 형태의 마을로 가덕대구, 수조기, 숭어, 감성돔 등 풍부한 어자원과 양파, 마늘, 천수답쌀 등이 유명하다. '소양보육원'이라는 고아원도 있다.

8) 성북마을

성북(城北)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학교등 유관기관이 몰려있고, 선창에서 마을 버스로 5분 거리에 있다. 이곳은 주로 농업을 하며, 가덕진성, 대원군척화비, 독립유공자 김근도 선생의 흉상 등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9) 눌차마을

눌차(訥次)는 외눌, 내눌, 항월, 정거마을로 구성된 섬 형태의 어촌이다. 동선 세바지와 제방으로 연결된 이곳은 선창을 잇는 다리가 놓여져 있다. 이곳은 문필봉, 눌차왜성, 항월장성 등이 있고, 정거마을 앞에는 국내 최대의 모래섬인 '진우도'가 있다. 굴채묘, 바지락, 피조개, 김, 파래 등을 주로 양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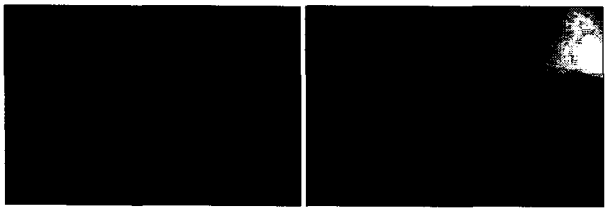

Fig. 5 선창 · 외눌 · 동선 · 성북 · 눌차마을 전경

6. 사 례 조 사

6.1 등대전시관 사례조사

1) 국립등대박물관

해상교통 안전확보와 근대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시대적 변천으로 사라져가는 항로표지시설과 관련 용품을 해양유물로서 영구히 보존하여 후세에게 물려주고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항로표지의 중요성과 바다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높은 호미곶등대(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39호)가 있는 호미곶에 1985년 2월 27일 최초 개관하였다.

그리고 등대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파란 바다와 푸른 숲 그리고 하얀 등대가 어우러지는 해양문화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제2전시관과 각종 부대시설 건립 및 전시물 보완을 위한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2001년 하반기에 확대 재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에게 등대유물 전시를 통해 해양문화 체험과 학습의 장소로서 항로표지발전 연구와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항로표지 용품과 바다관련 유물 320종 3,000점을 확보하고 50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관은 세계 선박의 발달사, 우리나라 해운항만의 변천사, 수산의 이용과 바다목장 모형,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바다생물의 표본병, 해양조사와 연구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전시하고 제2전시관은 등대관으로 항로표지의 기능과 역할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전시장을 비롯한 야외전시장에는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영일만을 운항하는 선박 및 울릉도, 독도가 있는 동해바다와 유명한 등대모형 및 대형 항로표지 장비 등이 전시되어 있다.

Fig. 6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소재) 전경

6.2 어촌민속박물관 사례조사

1) 거제어촌민속전시관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해변길 316번지

거제의 아름다운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바다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의 장이다. 1층에는 신비한 거제도의 해저세계와 3D 시뮬레이터를 통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교훈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바다'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원동력이며, 빼어난 관광명소와 천혜의 수산자원을 간직한 거제도의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부흥의 바다'가 있고 '기획전시실' 및 연근해 및 태평양산 어종으로 형태와 색상이 화려한 관상용 해수어를 전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수산생물의 신비로움과 해양생태계의 배울 수 있는 국제 최대의 원형수족관이 있다.

바다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전이공간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영상을 통해 거제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하실 수 '영상실겸 세미나실'이 있고 잊어져 가는 어구·어법, 어촌의 생활모습, 어선의 변천과정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코너를 마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바다' 공간과 고대로 부터 이어져 온 거제의 역사적 연대표를 전시하고 있고 기복 지도와 영상물을 이용하여 거제의 수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사라져 가는 민요를 복원 하는 등 전통문화에 대한 '전통의 바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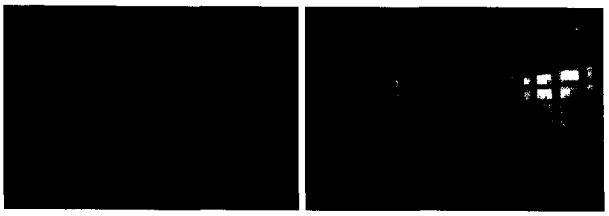

Fig. 7 거제어촌민속전시관 전경 및 전시관 내부

6.3 보존건출물 활용 사례조사

1) 임시수도기념관[2)]

임시수도기념관은 1926년 8월 10일 준공되어 경남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기 부산의 임시수도시설(1950~1953년)에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고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산시에서 매입하였다.

1984년 한국전쟁기의 각종 사진자료 등을 전시하는 임시수도기념관을 개관하여 2000년 이후 건물 복원공사, 전시실 꾸미기 공사를 거쳐서 옛 대통령 관저로서의 모습을 다시 찾았다. 2008~2009년에는 전시물 보완과 일부 전시실을 개편하는 보강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임시수도기념관 뒤편에 있는 고검장 관사도 이때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간으로 개편하였다.

임시수도시기 대통령 관저(부산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 및 비서들이 살면서 집무를 수행하고, 주요한 국빈들을 맞이했던 공간이다. 임시수도기념관은 임시수도시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실내구조와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1층은 응접실과 서재, 내실, 거실, 식당, 부엌, 증언의 방, 생각의 방 등 8개 방을 꾸며 임시수도 시기를 재현하고 2층은 전시실과 회상의 방으로 구성하였는데 회상의 방에서는 임시수도 부산과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전시실에는 한국전쟁관련 유물 및 이승만 대통을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건물은 목조 2층 건물로 일양(日洋) 절충형식이다. 도지사의 대외 활동 공간인 대현관과 응접실, 서재는 서양식으로, 도지사 가족의 주거공간은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양식으로 구성하였다.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의 수용 및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건축사적으로 귀중한 건물임과 동시에 일제의 수탈과 착취의 중심이었던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료인 경남도지사 관사였다는 점에서 후손들에게 일본의 침략상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자료이다. 아울러 한국전쟁기에 3년여 동안 대통령의 임시관저로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한국근대사에 있어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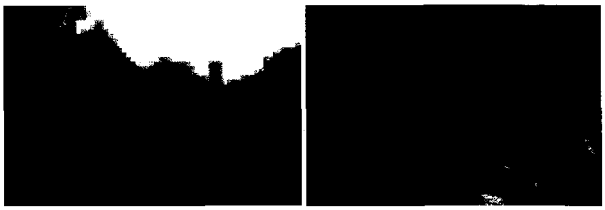

Fig. 8 임시수도기념관 전경 및 기념관 내부

2)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3)]

일제강점기에 경남도청으로 건립된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는 한국전쟁기에는 임시수도정부청사, 휴전 협정 후에는 경남도청, 경남도청 이전 후에는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본관 등으로 사용된 우리나라 근대사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건축물이다.

일제는 부산이 유일한 항만의 관문일 뿐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이며, 산업·교육·문화 등의 시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경남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왔다. 당시 경남도청은 부산부 부민정2정목(지금의 수구 부민동2가)에 있었던 자혜병원의 신축 건물에서 임시로 사무를 보면서 병원 주변 대지 8,735.7평을 도청 부지로 선정하고 1923년 착공하여 1925년 4월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0년 8월 18일 정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후 10월 27일 서울로 환도할 때까지 1차 임시수도 시설에 본 건물의 본관은 정부청사로, 상무관은 국회의사당으로, 뒤편 경찰국은 군·경합동작전사령부로 쓰였으며 도지사 관사는 대통령관저로 사용되었다. 1951년 1·4후퇴로 부산이 다시 임시수도가 된 후부터 1953년 8월 15일 서울로 환도할 때까지 1차 임시수도 때와 같이 사용되었다.

1983년 7월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58년 3개월 동안 경상남도청으로 사용되던 본 건물은 경남도청 이전 이후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본관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 동아대학교에서 인수하여 전면 보수공사를 거쳐 2009년 5월 동아대학교박물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다.

본 건물은 2층의 붉은 벽돌 건물이며 서구식 르네상스 양식의 변형된 양식의 건물로서 강한 정면성의 입면과 좌우 대칭의 평면이 특징이며, 입면 구성과 양측면의 마무리 구성이 비교적 아름다운 건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초 준공 당시에는 일자형으로 지어진 건물이 1960년대의 극심한 증·개축으로 인해 평면이 미음자형과 날일자형으로 변하였다.

옛 경상남도지사 관사였던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와 함께 대표적인 근대 관청건축물로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민족에 대한 수

2)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53호, 부산광역시 서구 대학2로 43번지 소재

3)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 제41호,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탈의 중심기구로서 한국전쟁기에는 임시수도의 정부청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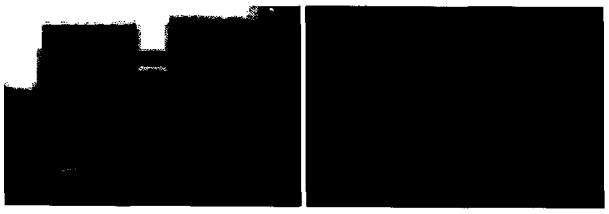

Fig. 9 동아대학교 박물관 전면 및 후면

3) 배재학당 역사박물관[5]

배재학당은 1885년 미국인 북감리교 선교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1858~1902년)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이다.

고종(高宗, 1852~1902)황제는 1886년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 곳에 '배재학당(培材學堂)'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2008년7월24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배재학당 동관(서울시 기념물 제16호)은 1916년 준공한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로서 아펜젤러가 전인교육을 실천했던 공간이자 수많은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발상지요 신문화의 요람이다.

전시관에는 근대 교육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소장품들과 함께 상설 전시장, 기획 전시장, 체험교실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은 교육·종교·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근대사를 새롭게 조명할 자료와 담론이 모여드는 공간이자 동시대와 호흡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1층 상설전시관에는 1930년대 사용했던 석칠판과 책걸상이 그대로 있는 배재학당 체험교실이 있고 배재학당의 태동과 배재의 정신을 소개하는 공간과 '이승만', '주시경', '나도향', '김소월' 등 우리 근현대사의 큰 획을 그었던 배재출신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 2층 상설전시관에는 윌리엄 아서 노블 가족을 중심으로 초기 선교사들의 다양한 활동과 배재학당의 설립자인 선교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 대한 헌신과 1900년대 초 선교사의 눈으로 본 한국 사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가능한 기획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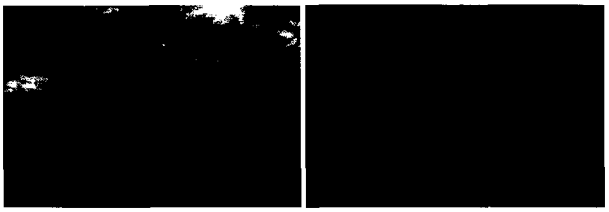

Fig. 9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전경 및 전시관 내부

6.4 국외 사례조사

1) 나오시마(直島), 일본

인구 약 3,600명의 섬 나오시마는 예술과 자연 그리고 주민이 만나는 문화의 장소로서 관광객이 연간 4만명이며 이중 해외관광객만도 2,000명에 달하고,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트래블러>가 '죽기 전에 가고 싶은 세계 7대 명소'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장소이다. 일본 본토 중남부 해안의 세토나이카이 해상국립공원에 자리한 섬으로 카가와현에 속해있다. 섬 전체의 규모는 여의도와 비슷한 8.13㎢ 정도이며, 이 섬의 가장 큰 특징은 섬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이자 전시장으로 하나의 문화촌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나오시마 섬 전체의 추진주체인 베네세 그룹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18년 동안 일관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베네세 그룹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도 단계별 미션을 설정하였다. <베네세하우스 개관 - 아트하우스 개관 - 지역주민 융화 - 지중미술관 개관 - 아트하우스 추가 개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 프로젝트 진행 속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꾸준히 이끌어 내면서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온 베네세 그룹의 추진력이 돋보인다.

지역주민을 흡수하여 융화를 이루어낸 점은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초기에 프로젝트에 반대하던 주민들은 가시적 성과를 경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나오시마를 방문하게 되자 점차 자긍심을 가지고 나오시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아트하우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에 영향을 주고 현재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변화와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자발적 프로젝트로 전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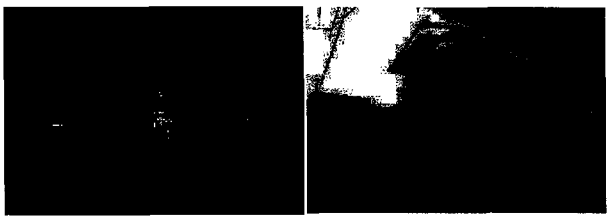

Fig. 10 베네세하우스 및 아트하우스 전경

4) 부산광역시(2009), 부산의 문화재, P70
5)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7호, 서울시 중구 정동 34-5번지 배재정동빌딩 동관 소재

7. 계획의 지향가치

7.1 체험교실로서 역사문화 전시관

올해로 점등 100주년이 되는 가덕도등대에 등대체험교실 설치를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년관' 사업으로 확대하여 해양문화공간으로서 가덕도등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가족단위 해양체험과 청소년 대상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해양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가덕도등대는 물론 가덕도 섬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겨 보고 후세에 물려줄 역사자료를 해양유물로서 보존·전시함으로서 해양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해양체험 인원	해양교육 인원
1,433명/년	112명/년

Table. 3 가덕도등대 해양체험 및 교육인원 현황(2008년)

건물은 100년된 보존건축물과 대응하는 현대적 건축물로서가덕도등대 100주년의 기념성을 강조하고 목재 등 자연스런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건축으로 계획한다. 1층은 식당 및 창고 등 공용면적으로 활용하고 2층에 세미나실 및 숙소 2실의 공간을 확보하고, 3층 전시실의 제1전시실은 '가덕도등대기념관'으로 하고 제2전시실은 '가덕도생활문화관'으로 구분하여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제1전시실은 타 등대전시관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가덕도등대 100년의 역사 전시물로 한정하고 제2전시실은 가덕도의 역사, 민속 등 가덕도의 섬문화 전반에 걸친 유물 및 사료를 수집하여 전시하도록 한다. 전시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관련 박물관의 유물을 복제, 임대하거나 민속학자 등 유물소장자들의 소장품을 구입 또는 임대하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현장 수집한 자료를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하도록 한다.

Fig. 11 등대전시관(제1전시실) 및 가덕도생활문화관(제2전시실)

7.2 해양문화공간으로서 가덕도등대

가덕도등대는 지금부터 100년전인 1909년에 건립되었다. 관세국고시 제99호 기록에 의하면, "융희 3년 12월 25일부터 한국남안 경상남도 가덕도의 동단동두말에 건설한 등대에서 매야 일몰부터 일출까지 점등함. 등대의 위치는 일본해군수로부간행의 해도 제304호에 의한즉 좌와 같음....."라 적혀있는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경제부흥기인 60~70년대를 지난 시절동안 가덕도등대는 등대로서 전통적인 역할에만 충실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등대 100년이 되는 해인 2003년을 전후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게 되는데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2000년)', '해양유물 보존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용역(2004)', '항로표지 조직과 인력운영 개선방안(2004)' 등 관련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존의 유인등대가 등대로서 고유기능뿐 아니라 해양문화공간으로서 적합한 장소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특히 외국의 경우 관련 기술발전에 따라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 등대운영방식을 기계화 또는 자동화(Automation)에 따른 '무인화'로 추진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등대에 기상수집,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집약관리시스템, AIS 등의 도입을 통해 '센터화'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유인등대의 장소적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문화공간으로서 국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가덕도등대는 지리적으로 부산항신항의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항로표지의 전진기지로서 최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해양문화공간으로서 그 위상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7.2 변화하고 있는 가덕도 고유가치의 재생

가덕도가 가진 고유한 가치는 먼저 자연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 예로부터 항구로 크게 발전한 부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떨어진 외딴 섬으로서 원초적 자연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담고 있다. 가덕도 구석구석에 간직된 자연의 아름다움 이외에도 가덕도가 지닌 고유한 가치의 또 하나는 가덕도에 살아온 사람들과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로부터 나온다. 가덕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유구한 세월동안 또는 격랑의 역사 중심에서 묵묵히 바다에 맞서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삶의 모습이 돌담으로 민가로 길로 그리고 생활과 풍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제물류의 중심항 부산신항만 건설공사가 지난 1997년 착공하여 현재 착실하게 진행중에 있고, 가덕도 천성을 시작으로 거제도와 연결되는, 2km 왕복 4차로의 국내 최장교량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가 조만간 완공될 계획이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가덕도는 섬이 아닌 섬으로 다시 태어나 서부산권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사를 다시 쓰는 크나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가덕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다. 최근의 급박한

주변 환경변화는 섬과 육지, 도시와 농어촌 등의 경계를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덕도 고유 가치와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문화공간으로서 가덕도등대를 통하여 가덕도 자연, 삶에서 비롯된 가덕도다움의 고유 가치를 재생하고 가덕도다움의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지향하고자 한다.

8. 사업 기본계획

8.1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 건축계획(안)

1) 기본개념

등대를 통한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을 위한 체험교실시설로서 1층에는 교육실 및 휴게실을 갖춘 다목적 홀로 계획하고, 2층에는 남녀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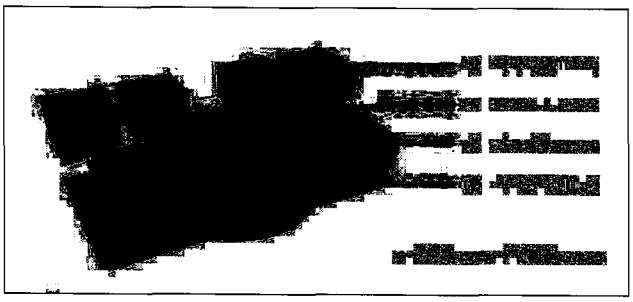

Fig. 11 가덕도등대 체험교실 기본개념도(최초계획안)

2) 건축계획 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13-2번지
지역지구/ 일부자연녹지, 일부공원, 일부문화재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연 면 적/ 증축 533.67㎡
건축면적/ 증축 2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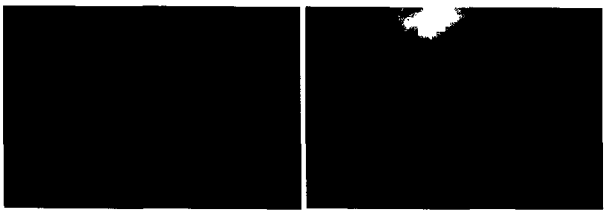

Fig. 10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 계획스케치 및 전경

8.2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 관광인프라 구축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관광인프라는 교통과 숙박의 문제로서 본 계획에서는 교통은 가덕도등대 입구의 접근성에 한하고 숙박은 가덕도등대 개방숙소에 대한 검토를 우선으로 한다.

1) 접 근 성

가덕도등대의 접근성은 '군사보호지역'내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부산항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육지와 연결되어 육로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가덕도 내에서도 선창(마을) > 장항(마을)> 두문(마을) > 천성(마을) > 대항(마을) > 외양포(마을)에 이르는 총 12.3㎞의 거리는 결코 녹록치 않으며 외양포에서 군부대 초소를 지나 가덕도등대에 이르는 약 4㎞의 비포장도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2) 개방숙소

사실상, 등대직원 숙소를 일반국민에게 대한 개방하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일방적인 대민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국민소득 증대와 여가시간의 증가는 마치 군사보호시설처럼 100여년간의 폐쇄되었던 등대시설을 일반국민에게 열어젖히게 만들었다. 등대시설에 대한 다양한 활용은 해외사례를 보아도 드문 일이 아니며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등대시설 개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둘 정도이다. 따라서, 개방숙소는 국민을 위하여 당연한 조치이며 유인등대 고유업무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로 확충하여 개방숙소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덕도등대의 경우 기존 1실의 개방숙소와 더불어 등대여름학교의 수용인원을 감안한 규모의 남녀구분 2실의 체험숙소로 조성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8.3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 프로그램 개발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 프로그램은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해양수산부, 2000.4.4)'에 의하여 상주 직원숙소 시설을 활용한 체험숙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여름 등대해양학교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1)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개방

연간 가족단위 60여팀의 범위내에서 일반인 인터넷 신청 예약을 받아 직원숙소를 무료개방하여 운영중이다. 주로 평일을 제외한 토·일요일에 일반인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기당 최대 7~8명이 이용할 수 있다.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용객(명)	?	260	197	257	221	417	452	316

Table. 4 가덕도등대 체험숙고 이용현황(부산청 통계)

2) 가덕도 여름 등대해양학교

매년 여름철(7~8월)에 시행되는 가덕도 여름 등대해양학교는 참가를 원하는 전국 초등학교 4년~중학교 3년을 대상으로 1기수당 남,녀 각각 8명씩 16명 총 5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등대해양학교의 교육내용은 가덕도등대 및 가덕도 외양포 일원(연대봉 봉수대 등)에서 등대체험 및 해양교통시설 교육, 바다그림 그리기, 바다관련 시 감상 및 동시 짓기, 해양훈련 및 바다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참석자(명)	80	80	80	80	80	102	84	84

Table. 5 가덕도 여름 등대해양학교 개설현황(부산청 통계)

8.4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 홍보/마케팅 전략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은 등대를 중심으로 체험위주의 해양교육의 장소로서 가덕도에 산재한 역사문화 유적과 함께 빠질수 없는 관광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부산광역시 가덕도종합개발계획과 연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가덕도 개발을 3개 축인 '눌차만', '천성항' 및 '대항'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가덕도등대가 포함된 대항은 문화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된 지역으로 한국전통 어촌체험마을과 일본군 유적지(포진지)를 활용한 영화세트장, 의료케어타운, 예술인 마을, 박물관, 등대견학 등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조성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은 가덕도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친숙한 시설로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 가덕도 일주도로와 연계한 등대탐방로 지정

제주도 올레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이용한 도보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정약용 남도유배길'(55㎞), '소백산 자락길'(34㎞), '강원도 산소길'(1,200㎞), '한국33관음성지 순례코스'(불국사, 해인사, 직지사, 통도사, 범어사 등) 등의 생태탐방로 등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는 주로 도선을 이용하여 마을간에 이동이 이루어 지다. 최근에서야 연륙도로 1.3㎞가 육지와 연결되고 가덕도 일주도로 12.3㎞이 도로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일주도로 주변에는 가덕도 역사문화유적지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통하여 흩어진 역사, 문화, 스토리, 테마 등의 통합이 가능하고 이와 연계하여 외양포에서 등대까지의 접근로도 생태탐방로로서 개발 시 접근성의 문제해결과 함께 홍보 및 마케팅의 전략으로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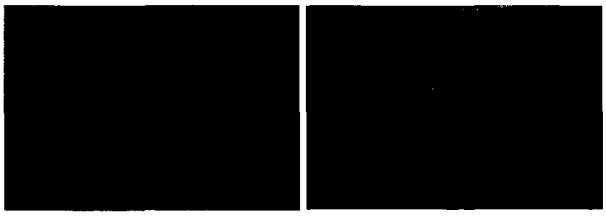

Fig. 11 부산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및 가덕도등대 진입로

9. 결 론

가덕도는 예로부터 항구로 크게 발전한 부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떨어진 외딴 섬이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유구한 세월동안 또는 격랑의 역사 중심에서 묵묵히 바다에 맞서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삶의 모습들이 돌담으로 민가로 길로 그리고 생활과 풍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덕도만의 해양문화는 아직까지도 가덕도 이곳저곳에 유적으로 산재하여 있다. 가덕도는 지리적으로 대양에서부터 한반도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가야시대 허황후의 항로, 세곡로, 임진왜란, 러일전쟁 등의 중심무대가 바로 가덕도이었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국제물류의 중심항 부산신항만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 신공항 유치 등 다시 한번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가덕도는 가덕도등대를 통하여 가덕도 고유 가치와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필요로 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을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다.

1) 가덕도의 해양문화로서 경관, 역사 및 사람들의 삶
2)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을 해양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사한 사례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을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교육의 거점으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 및 전시계획, 운영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전략 등에 반영하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덕도등대는 가덕도만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간직한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일반국민이 해양문화에 대하여 친근하고 진취적인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해양문화 및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시유물 수집과정에서는 가덕도에서 1950년 초반까지 부업으로 성행하였던 '가덕탕건'을 재현함으로써 무형문화재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등대의 대한제국 오얏문양 규명, 허황후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항로표지 기원, 봉수대의 역할 및 항로표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부분은

추후 이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안응희(2004), '유인등대를 활용한 친수공간의 시설, 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연구'
[2] 국토해양부(2003), '대한민국 등대 100년사'
[3] 부산지방해양항만청(2010), '가덕도등대 점등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집'
[4] 김용욱(2010), '가덕도등대의 역사(그 점등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5] 김승찬(1993), '가덕도의 기층문화'
[6] 김승찬(2010), '가덕도의 민속'

원고접수일 : 2010 년 월 일
원고채택일 : 2010 년 월 일